



通卷 一〇〇號를 맞는

大韓齒科醫師協會誌를回顧함

安 珙 珪
서울대학교 齒科大學 學長

1954年 11月 大韓齒科醫學誌로 出發한 大韓齒科醫師協會誌가 1977年 9月號를 發行하므로 해서 滿 23年만에 通卷 100號를 出刊하는 實로 感懷어린 瞬間을 맞이했다.

이 100號를 發行하기까지는 受難과 荊棘의 連續이 있다. 이렇한 受難과 荊棘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려히 雜誌를 發行해야 하는것은 齒科醫學界의 發展의 尺度가 集約되어 있으며 學術交流에 絶對적인 役割을 한다는데에 그 意義를 찾을수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協會會誌의 月刊發行은 齒科醫學界의 宿願이기도 했으며 이 月刊發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數많은 時間이 흘러야 했으며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協會誌 (當時는學會誌)가 創刊할 當時 齒科醫學會는 時代의 變遷과 齒科醫學會의 發展에 따라 漸次 8個의 分科學會로 늘어나고 있었으며 分科學會別로 學術活動이 始作되었다.

齒科醫學會는 分科學會協議體와 같은 役割을 맡고 있었으며 모든 學會는 本會를 通하여 發展하여 왔고 또 學術會는 綜合學術大會의 形態를 가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大韓齒科醫學會는 傘下機關 乃至는 地方組織이 缺如되어 있으므로 規定된 會費를 單獨으로 徵收할 수 없으므로 해서 大韓齒科醫師協會에서 이를 代行케되며 自然히 齒科醫師會에 比較되지 않을 程度로 會費徵收의 實績이 微微했다.

會費徵收가 거의 不可能해지자 오로지 贊助金에 依存한 學會運用은 至難한 것이었으며 이런 狀況에서 恒常 舉論된 會誌의 繼續發行은 거의 絶望에 가까웠다.

여기서 大韓齒科醫師會 및 大韓齒科醫學會의 二元化된 組織을 一元化시킴으로써 醫學會會長制는 自然히 없어지고 學會活動은 分科學會 中心으로 變하였다.

大韓齒科醫師會와 大韓齒科醫學會가 統合하는 統合體의 名稱은 大韓齒科醫學協會와 大韓齒科醫師協會의 兩論이 激甚한 論難을 벌였으나 結局「大韓齒科醫師協會」로 發足하기에 이르렀다.

大韓齒科 醫師協會는

▲大韓齒科醫學會誌 1卷 1954年 發行 {會長 朴明鎮
編輯 李春根}

<韓美財團 백록스博士의 財政援助로 發行되다>

▲大韓齒科醫學會誌 2卷 1960年 發行

{會長 李春根
副會長 李永玉·卞鍾順
總務 金東順}

<교정, 기초, 보철, 보존, 구강외과, 소치, 방사선, 페리오 學會의 絶對적인 後援아래 發行되다>

▲ 大韓齒科醫學會誌 第3卷 1961年 發行 [會長 李 春 根]
[副會長 金 東 順]

의 學會誌 發行實績을 勘案하여 協會의 規約에서 學術活動을 重要視하며 이를 通하여 會員相互間의 親睦할것을 定義하였으며 學術理事를 두기로 하되 分科學會의 統合機構인 學術委員會에서 이를 薦舉해서 協會長이 任命하는 常任理事와는 別格인 理事를 두게 되었다.

또한 協會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各分科學會를 補助하기로 하는 規定도 確定되게 되어 學術的 活動의 積極性을 于先 그 規約에서 엿볼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大韓齒科醫學會의 發展의인 統合으로 從來 學會에서 達成하지 못하였던 會誌發刊에 全力을 다해 즐것을 要請했음은 勿論 또 그렇게 하기로 諒解가 成立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1961년에 이어 大韓齒科醫學會誌 第4卷이 1962년에 當然히 發行되어야 함에도 끝내 發行치 못하였다.

이 當時 一部 分科學會誌는 판프렛形의 雜誌를 내고 있었으나 綜合學術誌가 나오지 않았으니 全員은 勿論이려니와 學會側의 失望도 적지 않았다.

學會側에서는 正式으로 協會의 機構로 編入되었으므로 해서 月刊으로 會誌가 發行되기를 希望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最少限 2回以上은 나오리라는 莫然한 期待를 걸고 있었다.

當時 初代 學術委員長 자리를 지키고 있던 筆者로서는 會員의 希望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터여서 機構改編初年度인 1963年度에는 年 2회를 무슨일이 있어도 發行이되도록 하여야 겠다는 굳은 決意를 했던 것이다. 即 第4卷 1,2號가 9月과 10月에 各各 發刊된 것이다.

以上の 4卷 1,2號를 出刊해 내는데에 對한 어려웠던 일을 回顧하면서 當時 協會의 實情을 잠시 살펴보면 學會를 協會傘下로 吸收 統合은 하였으나 協會誌 發刊費나 分科學會 補助金條로 別途會費를 徵收할 수 없어 協會費 引上으로 그친 狀態에서 會費徵收成績不振으로 協會自體의 財政이 困難한 形便에서 協會誌 發刊費 支出은 事實上 不可能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이런 가운데서 財政은 于先 會誌를 어떻게든지 發行해보자는 方針을 세우고 學術委에서는 原稿蒐集과 編輯만해서 公報部로 넘겨 會誌發刊 事業에 總力을 傾注하였다 (當時 公報理事는 鮮于良國 前 學長이고 學術理事는 筆者가 맡고 있었다).

그때는 齒科醫師들도 醫學博士 學位論文을 準備하는 사람이 있을 때이고 또한 主論文外의 副論文이 3,4編 있어야 될때 이므로 2,3個의 一般醫學 雜誌는 있어도 齒科分野의 雜誌는 하나도 없었던 關係로 早速한 日時에 比較的 容易에게 原稿(主로 學位論文)를 蒐集할수는 있었다.

學術委에서 原稿를 넘겨 받은 公報委로서는 新聞製作이 접친데다가 財政的 뒷받침이 잘 안되어 外上으로 作業을 進行시켰기 때문에 무려 數個月의 日時를 消費한 끝에 難産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 會誌의 名稱과 通卷을 몇번부터 하느냐에 對하여 여러가지 主張이 엇갈렸다. 誌名을 “大韓齒科醫師協會誌”로 하는데는 異論이 없었으나 會誌의 名稱이 바뀔에 따라 創刊號 即 1卷 1號로 하느냐 大韓齒科醫學會誌의 卷數를 承繼하느냐에 對하여는 見解의 差異가 있었다. 그러나 學術을 主로 하는 以上 學會誌의 繼續事業이라는 意義와 學會時節에 不過 3卷의 會誌를 만들기 위하여 近 10年이나 所要되었다는 點을 關聯지우기 爲함

과 그 時節 先輩들의 業績을 繼承한다는 意見의 一致를 보아 大韓齒科醫師協會誌 第4卷 1號가 1963年 9월에 드디어 出刊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4·6倍版 70餘頁에 達하는 會誌를 支部를 通하여 會員여러분에게 配本하니 不充分한 雜誌이었겠으나 그間的 어려움을 뒤돌아 볼때 執行部로서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約束은 初年度이기 때문에 2號는 期必코 發行하여야겠는데 1號發刊 때에 하도 혼이 나서 생각만해도 힘이 빠질 地境이었다.

그러나 가을은 조금도 용서없이 다가와서 代議員總會 및 綜合學術大會가 3週日程度밖에 남지 않았다. 當時 安鍾書會長께서는 期於히 第2號를 學術大會前에 出刊토록 強力하신 下命이 있어 編輯製作을 學術委에서 全擔하기로 하고 2號 發刊에 着手하였다.

그러나 가장 重要的 出版豫算이 全려없이 2號發刊을 拋棄할것을 提議했으나 學會를 統合한 初年度에 協會執行部로서 무슨 面目으로 臨하겠는가— 하시면서 資金이 解決된다하더라도 數個月이나 걸린것을 不過 2週內에 完成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셨다.

結果의으로 出版費는 總會即後 完拂키로하고 問題의 4卷 2號는 無難히 發行 配布할 수 있었다.

以上은 4卷 1,2號의 境遇를 들어서 어려웠던 그 當時의 會誌發刊 狀況의 一端을 例로 들은데 不過하지만 1964年度 5卷 1號를 내놓았으나 같은해에 發行되어야할 5卷 2號는 製作을 完全히 마치고도 製作代金支拂을 履行치 못해 찾지를 못하고 永久히 햇빛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1965, 1966년에는 그나마 缺刊되었고 1969년에 1,2號가 나왔을뿐 그 命脈維持를 爲해 얼마나 안타까운 나날을 보냈는지. 1954년부터 1969년까지 15年間의 歲月이 흘렀는데도 9卷 밖에 會員의 손에 쥐어주지 못했다는 點으로 미루어 그 어려움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듯 겨우 1년에 한차례씩 밖에 발행하지 못하는 지리하고 짜증스러운 協會誌를 月刊으로 每月 우리가 받아들 수 있고 더구나 100號를 發行하기에 이르른것은 全 齒科醫學界의 快事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金東順博士(前: 學術委員長·大韓齒科醫師協會會長)께서 月刊 發行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大業을 果敢히 完遂한 빛나는 業績은 齒協 30年을 通해 實로 至大한 功獻을 남겼다. 또한 月刊 發行이라는 量的인 面에서 質的向上을 이룩한 金用瑄 前 學術委員長(現 延世大齒大學長)의 執念과, 質量面에서 飛躍의인 發展을 갖어오고 完全한 會誌를 發刊하고 있는 現 學術委員長이신 金圭植 서울大齒大教授의 勞苦에 甚深한 感謝를 드리며 大韓齒科醫師協會와 協會誌의 無窮한 發展을 衷心으로 祈願한다.

서울 五福齒科材料商社

代表 金 碩 燦

서울 中區 南大門路 5街 6-14

전화(22) 2494 야간 (21) 4688

서울시 인정 제44호



세창화학공업소

권 력 문

서울시 용산구 도동1가 19-18(금정빌딩 302)

전화 (22) 5970